

2000년도 사업계획 확정

# 고효율조명기기 공동구매 시범사업 펼친다

## 공제조합 · 진단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검토

올해부터 ESCO협회(회장 최석곤)는 에너지절약기기의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진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ESCO협회는 지난 2월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삼성에버랜드 등 13개 정회원사 및 중앙전자통신 등 3개 특별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30일 협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협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우선 금년도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기기의 공동구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ESCO사업에 소요되는 절약기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회원사간 상호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비회원사와의 원가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올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내년부터는 대상기기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진단기술이 취약한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팀' 운영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회원사간 공동진단을 통해



최석곤 회장은 협회 활성화를 위해 비회원사의 협회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社團 에너지節約專門企業協會 定期總會

日時: 2000年 2月 28日 (月) 11:00 場所: 힐튼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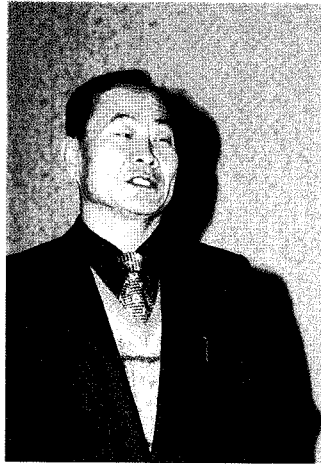
정기총회가 끝난후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올해부터 ESCO협회는 에너지절약기기의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진단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남정현 사무국장



지난 1년간 협회를 위해 수고한 이영학 회장



신임 이창순 감사

다. 신임 이창순 감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거쳤으며 “회원사를 위해 감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신규 회원사로 가입한 화인테크(주)(대표 심규호), (주)옥성(대표 김동욱), (주)베이스엔지니어링(대표 김종윤) 3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이로써 협회는 3월

현재 정회원 25개사, 특별회원 5개사를 포함하여 총 30개사를 회원사로 두게 됐다.

협회는 최근 ESCO 등록업체가 총 62개사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협회지,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 비회원사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및 관련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별진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제도분과, 경영관리분과, 기술분과 등 3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산학연이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회원사의 사업이행을 위한 보증, 운영자금 대출, 사후관리 보증 등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협회는 이 공제조합제도가 영세 규모의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 아래 현실화될 경우 신용도에 따른 사업자금 융통과 보증 업무에 따른 회원사의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ESCO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진단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상반기중으로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구성하고 이르면 7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대외 관련단체 및 해외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협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석근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협회 발족 이후 처음 맞는 정기총회로 감회가 크다”고 말하고 “정부나 공단과 ESCO 자금의 이자율 문제 등 현안문제를 계속 접촉하고는 있으나 아직 힘이 부족해 변호사, 전문회계사, 기술 관계자 등으로 특별회원을 구성, 보완해야 할 것들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학 감사가 개인신상을 이유로 임기중 사임함에 따라 새로 이창순 감사(동남아전설(주) 이사)를 선출했

